

	<h1>성명서</h1>	<h2>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h2>
---	--------------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전화:02)6788-3626

김종인 위원장님, 성차별적인 전근대적 사고로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가정을 지키는 역할’이 여성에게 있다는 등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저출생의 배경으로 양성평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연일 쏟아지는 반여성적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여성의 정치 참여 의지 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궤변은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이 독점한 폐쇄적 정치 구조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차별을 겪는다. 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의지가 있다면 여성할당제가 역차별이라며 폐지를 선동하는 이준석 당대표부터 설득하시라.

또한 김종인 위원장은 “여성은 외부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혀 가사노동과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전혀 상반되는 인식이다. 가정을 지키는 역할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문직종에서 여성이 남성의 우위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등 우리나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성차별적인 노동 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총괄책임자다. 흑세무민하지 말고, 시대정신을 읽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내다보길 바란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세력에게 표를 줄 만큼 여성들은 어리석지 않다.

2021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장 정춘숙